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6.11.30~2016.12.6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바람불면 다시오리라-소설 법정	백금남	쌤앤파커스
2	유식으로읽는반야심경	요코야마코이츠/하암	민족사
3	유마경강의(상)	남회근/송찬문	마하연
4	사찰불화명작강의	강소연	불광출판사
5	나를바꾸는100일	마가스님	휴(한겨레출판)
6	틱낫한기도의힘	틱낫한	불광출판사
7	금강경강의(강미농의)	강미농/양관	담앤북스
8	토끼뿔거북털	월주	(주)조계종출판사
9	불교에관한사소하지만결정적인물음49	장웅연/니나킴	담앤북스
10	원효대승기신론소(만화)-조합 주문	원효/서기님/백수로	주니어김영사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마음과 삶 풀어내는 열쇠 당신 안의 '질문'에 있다

만약 마음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면

백성호 지음 | 권혁재 사진 | 앵글북스 펴냄 | 1만 4천원



하루에도 수백번 바뀌는 마음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그는 아마도 깨달음의 경지에 오른 성인일 것이다. 그래서 저자의 책 제목 부터가 인상적이고 매력적이다. 제목은 〈만약 마음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면〉이다.

일간지 종교담당 기자인 저자는 삶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책 속에서 말한다.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더 이상 외부서 찾지 말라고. 당신을 가두는 벽에서 벗어나려면 내면으로 들어가라고 말이다. 그는 마음의 프레임을 넓혀야만 우리를 괴롭히던 삶의 좌충우돌이 줄어든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저자가 10년 넘게 수많은 종교인과 인문학자 들을 만나면서 얻어낸 삶의 공식을 한 땀 한 땀 모아 정리했다. 책은 단순히 삶의 기술을 가르쳐주는 자기계발서나 피상적인 사상을 떠드는 인문서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왜 이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법과 이해를 돕는다. 나아가 '깨달음'과 '이치'라는 피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을 보다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성격으로 쉽게 정리함으로써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수수께끼를 풀어내고 좀 더 수월하고 행복한 인생을 운용할 수 있는 법을 보여준다.

〈만약 마음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면〉은 기존에 출간된 〈현문우답〉 개정판으로, 첫 출간 후 깊은 사색을 통해 더욱 크게 성장한 저자가 기존 내용을 보다 깊이 있게, 그러나 보다 알기 쉽고 단순하게 풀어냈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서 널리 알려진 사진작가인 권혁재 기자도 이 작업에 함께해 '성장된 글'에 맞춰 자신의 최고 작품들을 선별 수록했다.

이 책은 15년 넘게 종교기자로 뛰어온 저자가 여러 성인과 종교 지도자, 영적 수행자 들의 발자취 속에서 배운 '마음을 마음대로 쓰는 법'에 대해 이야기 한다. 그것은 크게 '이해하기'와 '써먹기'로 나뉘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적어도 하루 한 번, 나를 비우고, 묵상하고, 깨치고, 거듭나면서 인생의 난관에 부딪쳤을 때 맞설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뿐만 아니라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의 원인이 되는 포인트들을 정리해 '풋대를 놓치지 않는 법' '편견을 넘어 나의 길을 가는 법' 등 희망의 끈을 다시 잡을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도 아끼지 않는다.

저자는 책 속에서 "두려움의 뿌리는 어디일까요. 답을 찾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두려움은 수시로 올라오니까요. 두려움의 바닥을 봐야 합니다. 두려움은 어김없이 나라는 자아가 생존의 위협을 느낄 때 뿜어져 나옵니다. 어떤 씨앗을 고를 건가의 문제는 그에게 어떤 열매를 고를 건가의 문제가 됩니다. 씨앗 속에서 미리 그 열매를 보고, 그 열매 속에서 또 씨앗을 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더 멀리 보고 더 깊이 보고 더 넓게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안목이고, 통찰력이죠."라고 말한다.

책은 '마음'이라는 근원에 관련된 내용답게 천주교, 불교, 기독교 등 수많은 종교의 벽을 넘나들며 우리의 일상을 소재로 하여 실생활서 활용할 수 있는 마음 훈련법을 제시한다. 또한 저자는 우리가 실제로 종교라는 터널을 건너는 이유가 바로 삶을 고단하게 만드는 수많은 장애물서 자유로워지기 위함이라고 말하며 '마음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때'야말로 자신의 새로운 가능성과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채우기 위해 비우는 것. 새로움을 받아들이기 위해 낡은 생각과 자신을 버리는 것. 이는 여타 종교들이 말하는 '행복을 찾기 위한' 수행법들의 기본 원리이다. 그리고 그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내 안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질문에 집중하고, 자연히 올라오는 그 답을 반복해서 바라보는 것이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이 훈련은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원활한 삶을 살기 위한 최고의 습관이 된다는 것이다. 내면서 일어나는 질문에 대한 이러한 구체적인 문답법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의 본질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한다. 저자는 내 주변서 일어나는 현상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 내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내 안에 깊이 물어볼 것을 권한다. 이러한 묵상은 어떠한 하나의 답에 이르게 하는데, 저자는 이때 멈추지 말고 다시 한 번 그것이 무엇이며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끊임없이 물어보라고 이야기한다. 바로 그때 우리가 진정한 삶의 본질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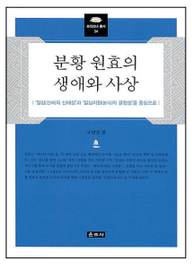
저자는 책 제목에 대한 답을 이렇게 말한다. "두려운 마음을 창조한 뒤에는 두려운 마음을 파괴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서 다시 다른 마음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필요한 때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한 마음을 쓸 수가 있는 거죠."라고.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원효대사가 위대한 사상가로 꼽히는 이유는?

분황 원효의 생애와 사상

고영섭 지음 | 운주사 펴냄 | 2만 5천원



한국불교를 뛰어넘어 세계적인 사상가로도 손색없는 원효 대사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 또한 그가 펼쳐낸 거대한 사상의 핵심은 무엇이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시사할까? 원효 스님 탄신 1,400년을 맞아 그동안 원효 연구에 천착한 저자가 그의 생애와 사상을 총체적으로 조명해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제목은 〈분황 원효의 생애와 사상〉이다.

원효 스님은 꼭 불자가 아니더라도 일반인들이 한번쯤 들어 봤을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승려중 한 분이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원효 대사는 다소 피상적이며, 그것도 〈삼국유사〉 등의 사서에 보이는 일화 위주의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사실 그가 왜 당시 세계제국인 당나라에서까지 보살로서 높이 평가받았는지, 또한 오늘날까지도 세계적인 사상가이자 성인으로 주목받는지에 대한 이유는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과연 원효 대사가 이처럼 위대한 사상가로 꼽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책은 이런 의문에 답하고자 평생 원효를 연구한 저자가 자신의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원효 생애와 사상을 총체적으로 탐색한 본격적인 원효 연구서이다.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돼 있다. 제 1장 〈생애와 저술〉서는 원효의 '생애와 역정'에 대해 서술하고 그가 지은 '저술의 서지학적 검토'를 했다. 그의 저술은 약 103부 208(214)여 권에 이르지만 현존하는 것은 겨우 20(22)부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에 원효의 저술 필사본과 산일문들이 더 확인되고 있어 그의 현존 저술분 확장과 정본화 작업이 더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 2장 〈화회논법의 탐구 지형〉에서는 원효의 대표작 중 하나인 〈십문화쟁론〉 연구가 종래에 어떻게 이뤄져 왔는지를 살피고, '원효 불학의 고유성'을 한국불교의 전통 확립과 관련해 기술했으며, 나아가 그의 학문태도이자 연구법인 화쟁과 회통 논법이 무엇이며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해 규명했다. 제 3장 〈일심과 본각의 성격과 특징〉서는 원효 대사의 마음철학의 가장 주 개념인 '일심의 신해성'(대승기신론소)과 '본각의 결정성'(금강삼매경론)의 개념과 그것이 지닌 의미와 가치에 대해 논구했으며, 아울러 〈대승기신론〉이 제시한 진망화합심(여래장)과 〈화엄경〉이 제시한 일심(진심)이 어떻게 같고 다르며 그것이 남북통일의 관점서 어떻게 원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연찬했다. 또한 제 4장 〈일심과 경 사상 및 염불관과 염불선〉서는 한국 불교와 유교의 대표적인 두 사상가의 핵심 개념인 '원효의 일심과 퇴계의 경 사상'의 상통성과 상이점을 규명했으며, 불교 정토 수행의 대표적 두 수행자의 핵심 개념인 '원효의 염불관과 청화의 염불선'의 같은 점과 다른 점에 대해 탐구했다. 그래서 이들 논구를 통해 분황 원효의 생애와 사상의 지형도를 그려내고 방법론을 규명하고자 했다.

부록에는 약 두 갑자(1901~2016년) 동안의 〈원효 관련 논저 목록〉을 붙여 연구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다. 원효 대사가 지은 저작뿐만 아니라 국내외서 이뤄진 원효 대사 연구 저서와 주석, 일반논문, 석사논문, 박사논문 등을 총망라하고자 했다. 원효 대사는 '하나의 마음'을 '두 개의 교문(一心二門)'으로 해명하는 논서인 〈대승기신론〉를 기초로 '일심 철학'을 구축했다. 그것은 살아 있는 모든 존재가 추구한 본성인 '하나를 향한 그리움'이자 '고향을 가는 기다림'이며 '일심의 근원인 붓다로 돌아감'이라는 메시지이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분황 원효의 삶과 사상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가리키고 있다.

김주일 기자

선행 원리 익혀 습관 만들면 소원 이뤄져

선행의 기적

현재호 지음 | 들메나무 펴냄 | 1만 3천원



선행이란 현재 상황을 이해해 감사히 받아들이는 마음과 행동이다. 선행을 하겠다는 그 마음만으로도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 선한 행동을 보거나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인체의 면역력이 높은 수치로 향상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이를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한다. 선행의 의미를 일찍 깨달은 선지자들은 다양한 의미의 명언을 쏟아냈다.

"한 인간의 가치는 그가 무엇을 받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줄 수 있느냐로 판단된다." 〈아인슈타인〉 "선행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투자이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남을 진정으로 위하고 남이 잘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까?' 고민하는, 그런 선한 마음은 나를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오늘, 기분이 나쁘다면, 비록 작은 일이라도 누군가를 도와줄 생각을 하라." 〈혜민스님〉

선행은 거창한 명제가 아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내는 것, 이것이 선행의 시작이다. 길가에 떨어진 휴지를 줍는 것, 누군가 내 차 앞에 끼어들어도 욕하지 않는 것, 먼저 보고 먼저 인사하는 것, 자신을 태워준 버스기사에게 감사의 목례를 하는 것.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버릇이 될 때 선행은 기적처럼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 돌아온다. 이 책은 피상적으로만 알던 선행의 원리와 개념을 동서고금을 넘나드는 광폭의 지혜와 논리로 짚어주고, 이것이 자연 순환의 원리임을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말미에 선행을 적을 수 있는 〈선행 노트〉를 수록해 자신이 실천한 선행 하나하나를 적어보도록 했다. 틈나는 대로 읽고 꾸준히 실천하면 지혜와 통찰력이 깊어지고 바라는 대로의 삶이 펼쳐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선행은 복이 쌓이는 적선(積善)의 저축통장이다.

"잘못한 일도 없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열심히 사는 사람이 불행에 빠지는 경우는 단 하나다. 남을 배려하는 선행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열심히 살았다 해도 나와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의 행복에는 관심 없는 것, 그것이 잘못이다. 나 자신이 자연의 일부분임을 자각한다면 이타적인 삶이 자연의 이치에 부합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세상 모든 인과관계에서 뿌린 만큼 거둔다는 것이 자연의 원리인 것이다.

"선행에는 시간과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선행은 자연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자연의 일부인 타인을 위해 이로운 마음을 내는 것, 이것이 곧 선행인 것이다.

김주일 기자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붓다북
www.buddhabook.co.kr
불교 종합 쇼핑몰
불교서적
명상음반
신행용품

서울 성북구 보문로38길11 동일하이빌 B1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3번출구)
붓다북 02. 953. 7181.